

■ 기본 목표 :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그리고 일인당 소득 4만불 시대의 진입

■ 2014년 상황에 대한 전망

- 선진국 : 2013년 1.2%에서 2014년은 2.0%로 증가
- 미국경제는 1.6%에서 2.6%로, 유럽은 2013년 -0.4%에서 2014년은 1.0%로 증가할 전망인바 주목할 만한 것은 2014년 유럽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종지부를 찍고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는 점.
- 그리스의 경우 2013년 -4.2%에서 2014년은 +0.6%로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유럽경제는 2013년이 바닥이 되는 셈이며 2014년부터는 본격적 회복이 시작.
- 신흥국의 경우 2013년 4.5%에서 2014년 5.1%까지 성장률이 상승할 전망
- 일본의 경우 소비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3년 2.0%에서 2014년 1.2%로 성장률이 다소 감소할 전망
- 중국의 경우 리커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13년 7.7%에서 2014년 7.3%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IMF는 2014년 경제예측을 하면서 큰 화두를 “전환과 긴장”(Transition and Tension)으로 제시하였는바 선진국은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정도이지만 신흥국은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는 데에 따른 ‘긴장’이 예상됨.

■ 2014년 한국경제 전망

- 금융연구원의 2014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0% 인바 2013년의 2.8% 대비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최근의 부진함을 뒤로 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민간소비의 경우 증가율이 2013년 2.2%에서 2014년 3.2%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준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내수부문의 확장세가 피부로 느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 증가율의 경우 4.1%에서 2.2%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설비투자증가율은 2.4%에서 7.5%로 뛰어 오르고 수출도 증가율이 5.4%에서 6.7%로 증가하면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3년의 707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530억 달러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서 외환부문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임.

■ 금융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 금융 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 최근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일대 수술에 가까운 조치가 필요.
- ‘금융기관이 돈을 벌어 뭐하냐’는 식의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비판론까지 제기
-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각액은 8조 여원에 달했는데 이는 가계대출 연체액 4조여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였고 2012년의 경우 2.1조원 2013년 상반기는 1.2조원을 상각처리

-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부실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정상적 대출을 회수하려 들 것이고 갑자기 대출상환을 요구받은 차주들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상환을 시도할 경우 매물 증가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마비되면서 경제에 커다란 주름살이 드리울 수도 있음.

■ 금융기관 규제강화와 완화에 대한 적절한 믹스가 필요

- 바젤3 조치가 시행되는 등 은행의 자기자본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성에 경보가 울리고 있고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 분야가 힘든 투쟁을 벌이면서 수익성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

- 구조조정과 부실처리에 수반되는 채무재조정과 부실채권 상각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하여 땀집을 길러야 함.

■ 자본시장 역할에 대한 재정립

- 자본시장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내하면서 증권을 매입하게 되므로 은행에 비해서 부담이 다소 적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잘 형성되도록 하는 시장조성의 역할을 증권사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도 매우 중요함.

- 평소에 적절한 이익을 내고 이를 잘 쌓으면서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야 중요한 순간에 시장조성의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

- 보험사의 경우도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여 잘 운용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회사의 역할 또한 금융시장 내에서 막중함.

■ 금융권의 해외진출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

- 국내 금융산업은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문제는 해외시장도 이미 주요기관들이 진출한 상황이므로 뒤늦게 뛰어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됨

- 그러나 국내시장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장이라는 점에서 다각화의 관점을 가지고 신중하면서도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새로운 먹거리 창조를 위한 모험자본 형성

-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등의 모험자본 이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펀드가 조성되면서 민관협력 차원에서 창조경제달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금융권에서 이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10-10-밸류업'의 추진

- 정부가 금융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인데 이 방안에는 3C라는 여젠다가 포함됨

- 경쟁(Competition)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그리고 융합(Converhence) 라는 세 개의 C를 제시하면서 향후 금융이 나아갈 바를 지적함

-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경우 상당한 변화와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과제의 중요성이 부각

- 현재 대기업 부문 내에서도 상당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이외에는 매우 힘든 상황임
- 건설 해운 조선 철강등의 산업은 매우 힘들어 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 작업까지도 진행
- 동양그룹의 경우 은행중심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여 은행대출을 갚아버림으로써 주채무계열에서 탈퇴를 하였는데 결국 자체 구조조정에 실패하였고 많은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짐.
- 다른 기업들도 동양의 사례를 잘 분석하여 구조조정 작업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등 금융기관도 큰 그림을 가지고 적절한 작업을 진행시켜야 함.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관-시장-기업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이 역할을 해야함.

■ 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화사회의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

-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매우 고조된 상황인 바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해 지나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경우 정보화사회와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대비가 지연되거나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두가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2014년도가 경기고점이 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

- 우리나라 경기의 확장기는 평균 31개월 정도인데 최근의 저점은 2012년 9월 근처로 파악됨.
- 확장기의 평균 길이를 감안하면 경기고점은 2015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큰바 2014년에 따듯해지는 상황을 경험한 후 다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 2014년 경제정책은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바 안정책을 너무 오래 쓰다가 부양책을 써야할 시점을 놓치게 되면 정책의 유연성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정책 타이밍에 신경을 써야 함.

■ 자영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

- 이 과제들은 단 시간에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며 그럴수록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함.
- 부동산가격하락은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내수악화를 통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 금융권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경우 전체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함.
- 자영업의 경우 약 700여 만명이 레드오션에 가까운 분야에서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자영업의 경우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 분야의 부실은 금융부실로 직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

요함

- 이 문제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을 막중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처방이 계속해서 제시되어야 함.

■ 가계소득 비중 감소에 대한 대응

- 가계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바 1990년대 약 70%였던 가계소득비율이 60%까지 줄어들었음.

■ 가계부채 관련 대책의 필요성.

-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인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다만 이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복합적 처방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야.

■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

- 부동산의 투기재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이 필수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각종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함.

- 양도세 중과 등을 비롯하여 투기재적 시각에 맞추어 정립된 제도에 대한 일대 수술이 필요하고 부동산도 재화인 만큼 물가상승률 정도의 가격상승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 시세 상승률 목표제에 가까운 정책을 통해 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산업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

- 노령화로 인한 저축증대가 소비에 대한 제약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노령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정비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 놓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바 노년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노력을 최대한 장려함으로써 국가는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개인연금 등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하여 스스로 노년을 준비하는 규모와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함.

■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전환이 필수적.

- 일본이 무역적자를 내면서도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취득한 막대한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이자 덕분인바 우리도 본격적인 노령화가 진행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벌어들이는 외화를 잘 이용하여 전 세계에 다양한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쌓여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증대시켜야 함.